

다양한 광고·홍보전략으로 승부한다

일간지와 광고전단을 활용한 출판광고 시상전

출판마케팅에서 광고와 홍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많은 책들 속에서 책을 알리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홍보와 효과적인 광고전략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야 하기 때문이다. 《출판저널》에서는 각종 광고매체와 홍보전략을 통해 선보인 광고를 선별하여 광고의 실물전시와 그 광고 캠페인, 홍보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베스트셀러의 광고라 해서 모두 훌륭한 광고거나 아름다운 출판광고는 아니다. 반면에 디자인이 뛰어난 광고나 물량이 많이 투입된 광고도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좋은 광고는 못된다. 이렇듯 좋은 광고, 나쁜 광고의 기준은 애매하지만 다양한 출판광고들이 도서관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출판광고가 가장 많이 게재되는 것은 5대 매체 중 인쇄광고, 그 중에서도 일간지 5단통 광고다. 그의 시사주간지, 문학계간지 지면에 단행본 광고를 게재하고 있고, 홍보전단이나 책갈피 끼우개 등의 홍보물, 도서목록 형식의 전단 등이 보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의 출판인쇄광고 경향을 살펴보면 베스트셀러에

오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나는 자작나무를 닮다》 《선과 악을 다루는 35가지 이야기》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등 단행본을 다룬 5단통 광고가 자주 게재되었다. 이에 비해 종합출판사들은 지면을 분할하여 많은 종류의 책을 소개하는 스타일의 광고를 선호하고 있다.

광고의 아이디어도 다양하다. 임철우의 《봄날》은 저자의 사진과 함께 책에서 발췌한 간결한 문장을 카피로 써서 연작광고를 내보냈으며, 《한국이 죽어도 일본을 못따라잡는 18가지 이유》는 '당신이 죽어도 이책을 읽어야 하는 18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각 일간지지자의 찬평을 묶어 흥미를 끌었다.

그밖에 《덕테》와 《카드펠 시리즈》 등 디자인 감각이 돋보이는 전단광고들이 서점에서 배포되었으며, 《프로방스의 1년》처럼 책의 일부를 발췌, 작은 책자로 만들어 맛보기로 배포하는 아이디어도 돋보였다.

— 마정미 기자



· 3단으로 접지한 《남하강》(소담출판사) 홍보전단. 산과 강의 이미지를 차용한 판화를 이용하여 유민과 떠돌이 동학꾼들의 이미지를 살렸다. 내지에는 세세한 작품 설명과 줄거리를 담았다.

(주)사계절출판사 TEL: (02)736-9390
사계절 좋은 책
사계절

‘역사’라는 큰 선물

자녀들에게 현재와 미래를 읽어내는 지혜를...



내 아이에게 꼭 읽고 싶은 책 - 역사신문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수록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는 곧 현재와 미래를 읽어내는 거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역사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감명깊은 책 한권처럼 역사신문은 자녀들에게 평생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신문처럼 만든 알차고 재미있는 우리역사-

- 인기 위주의 역사책에서 탈피, 시사생활 변화 인터뷰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생생한 시대에 친밀하게 접근하였습니다.
- 신문이라는 획기적 형식만큼 그 내용도 알차고, 차기 나침반의 역사를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눈앞에 훌륭한 교재가 됩니다.

전6권 (전용물 제1호도 있습니다)

- 1권 원시시대-통일 신라 (가원년 707년~907년)
- 2권 고려시대(907년~1392년)
- 3권 조선 초기(1392년~1897년)
- 4권 조선 후기(1897년~1910년)
- 5권 대한제국(1910년~1945년)
- 6권 일제강점기(1945년~1945년)

민족의 시원이 백두산 천지이듯 역사소설의 뿌리는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입니다



벽초 홍명희의 큰 소설 임꺽정

벽초의 '임꺽정'이 오늘날 더욱 빛과 힘을 발하는 까닭은 이이 석민지 시대 이래 잃어버린 우리들의 고향-민족의 얼과 혼, 투박한 절그릇 같은 민중의 삶이 자라낸 우리들의 풍속과 언어, 그리고 마치 우리가 토착구와 원 무리들과 김치 깎두기를 안 먹고 못 배기는 것과 같은 조선의 냄새-에 대한 강렬한 향수이자 되찾고 싶은 몸부림이 아닐까?

- 서울대학교 추천 문학 필독서
- 남북한을 통틀어 유일한 판본!
- 벽초 홍명희 지음
- 전10권 각 권 6,000원

· 《역사신문》(사계절) 일간지 광고. 여백의 미를 살린 정갈한 레이아웃에 알려져 할 모든 정보가 들어 있다. '역사라는 큰 선물' '자녀들에게 현재와 미래를 읽어내는 지혜를...'이라는 카피가 리본을 두른 책사진과 어우러져 의미전달이 명확하다. (98년 1월 3일 동아일보)

